

[번역]

파스카 성야의 ‘파스카 초의 마련’에 대한 성경 해설*

■
프랑코 만지(Franco Manzi)

윤 종 식 옮김

[가톨릭대학교 전례학 교수·신부]

1. 인간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존
 - 1.1. “당신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당신의 햇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히브 1,12L)
 - 1.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 1.3. 주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2.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의미
 - 2.1.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 2.2.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히브 22,7)
 - 2.3. “주님, 언제까지 심판을 미루시렵니까?”(묵시 6,10)
 - 2.4.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파스카 성야 동안 ‘파스카 초의 마련’(praeparatio cerei) 양식문에는 깊이 있는 신학이 담겨 있는 매우 간명한 양식문을 낭송하는 것이 포함된다. 「로마미사경본」¹⁾에서 다음과 같이 낭송된다.

* 이 글은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번역문임.

Franco Manzi, “Commento biblico alla 《praeparatio cerei》 della Veglia Pasquale”, *Notitiae* 39(2003), Congregatio de cultu divino et disciplina sacramentorum, Città del Vaticano, 2003, 53-71. 프랑코 만지(Franco Manzi, 1966-)는 밀라노 교구 사제로 로마의 성서대학에서 성서학 석사를 취득하고 예루살렘의 성서대학에서 수학을 하였으며 로마의 마리아눔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밀라노교구 신학교에서 신약성경과 히브리어 강의를 하고 있으며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고, 밀라노 교구의 신학 잡지인 *La Scuola Cattolica* 책임자이다.

1) *Missale Romanum ex decreto sacrosancti oecumenici Concilii Vaticani li instauratum auctoritate Pauli PP.VI promulgatum, Ioannis Pauli PP.II cura recognitum*, editio typica tertia, Typis Vaticanis, 2002, p.339; 참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주간 파스카 성삼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 192쪽.

Christus heri et hodie, principium et finis, alpha et omega. Ipsius sunt tempora et saecula. Ipsi gloria et imperium per universa aeternitatis saecula. Amen.

주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시작이며 마침이시고, 알파이며 오메가이시고, 시간도 시대도 주님의 것이오니,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아멘.

최근에 작성된 이 본문은 불가타(Vulgata) 역본²⁾에 따라 신약성경의 구절들을 지혜롭게 조합한 결과이다.³⁾ 앞부분의 “주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라는 표현은 히브리서의 “Iesus Christus heri et hodie, ipse⁴⁾ et in saecula.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13,8; 참조 1,10~12)에서 유래한다.

반면에 그리스도론적 주제인 “시작이며 마침이시고”는 요한 묵시록에서 따온 부분이다. 요한 묵시록 1장 8절에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라고 주 하느님이 자신을 정의하였다.⁵⁾ 하느님께서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같은 개념을 반복했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21,6).⁶⁾

대신에 22장 13절에서 말씀한 분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이며, 아버지 하느님과 거의 동일한 용어로 자신을 제시한다. “Ego sum A et Ω, primus et novissimus, principium et finis.”⁷⁾ 게다가 요한 묵시록(1,17~

2) 불가타 역본의 경우, 다음의 비평본을 참조하기 바란다. Augustin Merk(ed.), *Novum Testamentum Graece et Latine* [...],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Romae, editio decima, 1984.

3) Cf. Annibale Bugnini & Carlo Braga, “Ordo hebdomadae sanctae instauratus”, *Ephemerides Liturgicae* 70(1956), 81~228 특히, 186.

4) 새 불가타 역본은 “ipse”를 “idem”으로 대체한다. 새 불가타 역본에 대한 비평본은 다음의 것을 사용했다. *Novo Vulgata Bibliorum Sacrorum Editio, sacro sancti oecumenici Concilii Vaticani II ratione habita iussu Pauli PP. VI recognita auctoritate Ioannis Pauli PP. II promulgata. Editio typica altera*, Libreria Editrice Vaticana, Città del Vaticano, 1984.

5) 새 불가타 역본은 약간 다른 본문을 제시한다. “Ego sum Alpha et Omega, [...] qui est et qui erat et qui venturus est, Omnipotens.”

6) 새 불가타 역본 “Ego sum Alpha et Omega, principium et finis [...].”

7) 새 불가타 역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Ego Alpha et Omega, primus et novissimus, principium et finis.”

18)의 저자와의 첫 만남 이후로 부활한 주님은 꽤 비슷한 범주를 사용했다. “[...] Ego sum primus et novissimus, et vivus⁸⁾ et fui mortuus et ecce sum vivens in saecula saeculorum [...].”⁹⁾ 마지막으로,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의 머리글에서 그리스도론적 제목이 나타난다. “Principium creaturae Dei. 하느님 창조의 근원”(3,14).

전례 양식문의 세 번째 부분,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아멘”은 무엇보다도 요한 묵시록 1장 6절의 그리스도론적 진술을 다루고 있다. “Ipsi gloria et imperium in saecula saeculorum. Amen.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또한 베드로의 첫째 서간 4장 11절에서 비슷한 영광송을 볼 수 있다. “cui est gloria, et imperium in saecula saeculorum. Amen. 그분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을 누리십니다. 아멘.” 5장 11절 “Ipsi gloria et¹⁰⁾ imperium in saecula saeculorum. Amen. 그분의 권능은 영원합니다”(유다서 25절에서 “[...] gloria et¹¹⁾ magnificentia, imperium et potestas ante omne saeculum et nunc et in omnia saecula saeculorum. Amen.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와 앞으로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비슷한 용어가 신약의 다른 표현에도¹²⁾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구약의 *humus*에 뿌리를 둔 것이 분명하다.¹³⁾

성경 인용과 암시가 풍부한 전례 양식문인 ‘파스카 초 마련’에 대한 그리스도론적 전망은 두 가지 개념, 곧 ‘인간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존’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8) 새 불가타 역본은 “vivens”가 있다.

9) 참조: 묵시 2,8; 이사 44,6; 48,12.

10) 새 불가타역은 명사 Gloria와 접속사 et가 나타나지 않는다.

11) 새 불가타역은 접속사 “et”에 주의한다.

12) 참조: 특히 로마 16,27; 갈라 1,5; 1티모 1,17; 히브 13,21.

13) 참조: 예를 들어, 토비 13,1.13; 시편 103(104),31; 다니 3,26.52-57; 74,83.

1. 인간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존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속성에 대한 개념은 히브리서 13장 8절 “Christus heri et hodie.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이 인용된 전례 양식문에서 나온다. 히브리서 12장 13절에서는 편지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12.14~13.18)의 주제를 선포하며, 잠언 4장 26절의 말씀과 함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바른길로 나아갈 것을 권유받는다. 길의 은유는 다음 구절에서 실존적 용어로 즉시 명시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참조: 13,1~18), 하느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참조: 12,14~29)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인간관계의 평화 추구에 관한 논의는 명백히 교회적인 관점을 취한다. 교회는 소위 “지도자들”(13,7.17.24)의 지도 아래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내부 일치(8절)를 찾는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수신자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유지하도록 권고(13절)하고 일부 이단 경향에 대해 경고(9절)한다. 특히,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 대한 예배 거행과 유대인의 예배 참여(9절) 사이의 근본적인 양립 불가능성을 분명히 한 후 정통 그리스도교 예배의 주요 노선을 식별해 준다. 하느님 이름을 고백하고(15절) 형제애의 실천(16절)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존적인 희생에 참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교 예배(참조: 9,14; 10,4~10)는 필수불가결하며 전례와 생활을 분리할 수 없다(참조: 10,36; 13,21).¹⁵⁾

14) Cf. Albert Vanhoye, *La structure littéraire de l'Épître aux Hébreux*, Desclée de Brouwer, Paris, 1976, pp.48. 205.

15) Albert Vanhoye, “Culto antico e culto nuovo nell'Epistola agli Ebrei”, *Rivista Liturgica* 65(1978), 595-608. 특히 602-605.

1.1. “당신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당신의 햇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히브 1,12나)

구원 역사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의 항구한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은 — 일부 성서학자들은 히브리서가 아마도 교회 전통에서 이를 받아들였을 것이라 한다¹⁶⁾ — 이러한 문학적 지평에 들어맞는다 (13,8). 저자는 이 문단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권고적 장르(13,7-18)와는 거리가 있는 전례적 문체로,¹⁷⁾ ‘권고 담화’의 첫 부분에서 하느님의 아들에 관해 이미 선언한 것을 이 간략한 신앙 고백에서 반복한다(13,21).

“주님, 당신께서는 태초에 땅을 세우셨습니다. 하늘도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그것들은 사라져 가도 당신께서는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그것들을 옷가지처럼 말아 치우시고 그것들은 옷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당신의 햇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히브 1,10-12).

히브리서는 시편 102장 26-28절을 인용하면서 하느님 아들의 불변성(ὁ αὐτός, 같으시고, 1,12; 참조: 13,8)을 주장한다. 특히, 창조부

16) Cf. Harold W. Attridge, *The Epistle to the Hebrews*, Fortress Press, Philadelphia, 1989(=Hermeneia: A Critical and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ible s.n.), p.392; Floyd Vivian Filson, “Yesterday”, in *A Study of Hebrews in the Light of Chapter 13*, SCM, London, 1967(=Studies in Biblical Theology: Second Series 4), p.31; William R. G. Loader, *Sohn und Hoherpriester. Eine tradi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zur Christologie des Hebräerbriefes* (=Wissenschaftliche Monographien zum Alten und Neuen Testament 53), Neukirchener Verlag, Neukirchen-Vluyn, 1981, p.183; Otto Michel, *Der Brief an die Hebräer*,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6. Auflage 1966(=Kritisch-exegetischer Kommentar über das Neue Testament 13), p.490; Jukka Thurén, *Das Lobopfer der Hebräer. Studien zum Aufbau und Anliegen von Hebräerbrief 13*, Åbo Akademi, Åbo, 1973(=Acta Academiae Aboensis. Serie A. Humaniora 47.1), p.183; Hans Windisch, *Der Hebräerbrief*, J.C.B. Mohr, Tübingen, 2. Auflage 1931(=Handbuch zum Neuen Testament 14), p.117.

17) Cf. H. W. Attridge, *Hebrews*, p.392; Paul Ellingworth, *The Epistle to the Hebrews*, Eerdmans, Grand Rapids, Michigan, 1993(=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s.n.), pp.704-705; August Strobel, *Der Brief an die Hebräer*,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4. Auflage 1991(=Das Neue Testament Deutsch 9,2), p.178.

터 세상 끝날까지 펼쳐지는 구원적 전능하심을 지닌 분으로 그분을 인정한다. 따라서 천사의 이름에 비해 아들의 이름이 — 곧 위엄 — 더 우월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로 밝힌다(참조: 1,4). 히브리서의 경우, 창조된 천사는 필요에 따라 하느님에 의해 ‘바람’이나 ‘타오르는 불’(1,7; 참조: 시편 104,4)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 반면에 하느님의 아들은 영원히 안정될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참조: 히브 1,10).

원래 문맥에서 볼 때, 시편 102장의 히브리어 본문에는 메시아나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사실, 이 위로의 시편을 통해 구약의 신자들은 하느님께 직접 말씀드리면서, 그분의 현존과 그분의 개입이 그들이 겪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계속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파스카 신앙에 비추어 이 구약의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론적 해석을 제시하며,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의해 끝날 심판을 암시한다. 히브리서 1장 8~9절을 다시 읽어 봐도, 시편 45장 7~8절과의 연관성은 매우 분명하며, 항상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실현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사실, 바로 과거 개입 — ‘어제’(13.8) — 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계십니다”(히브 1,11). “εις τὸν αἰῶνα τοῦ αἰῶνος, 영원무궁하며”(히브 1,8). 이러한 의미에서 시편 101장 26~28절의 인용은 히브리서 13장 8절(εις τοὺς αἰῶνας, “영원히”)의 환호로 간결하게 다루어질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에 대한 종말론적 관점을 강조한다.

반면에,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분의 창조 활동을 의미한다. 히브리서는 서문(1장 2절 참조)에서 아버지의 창조 사업에 있어서 하느님의 아들의 중개를 목상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시편 101(102)장 26~28절을 그리스도론으로 다시 읽은 덕분에 창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중개 활동은 가능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따르면 우주의 창조자는 하느님의 아

들이다. 하느님과 동일한 창조 활동을 한 아들에 대한 이러한 귀속은 히브리서가 아들에 대해 엄격한 신적 동일성을 인정하고¹⁸⁾ 그를 70인역에서 사용된 ‘Θεός’(하느님, 1,8-9)라는 칭호와 ‘Κύριος’(주님, 10)이라는 칭호로 지칭한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확증된다. 습관적으로 테트라그람마톤(יהוה, 야훼), 곧 하느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것이다(다니 6,4 참조).¹⁹⁾ 마지막으로, 하느님인 아들도 부활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²⁰⁾을 시작하실 권세를 갖고 있다(참조: 히브 1,11~12; 12,26-27).²¹⁾

1.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이 매우 고상하고 복잡한 그리스도론적 개념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정체성에 대한 일종의 믿음의 환호라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7~18절의 전개에서 이 진술은 바로 앞의 초대와 바로 이어서 앞의 것을 상기시키는 내용 모두에 대해 확증적인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과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이전의 권고(7절)와는 별도로, 8절의 고백은 아마도 그리스도를 이유로 박해(참조: 10,33~34)받고 순교했을 이들의 믿음²²⁾ 참

18) 참조: 요한 1,1; 20,28; 로마 9,5; 티토 2,13; 2베드 1,1. Albert Vanhoye, *Situation du Christ. Hébreux 1-2*, Cerf, Paris, 1969(=*Lectio Divina* 59=8), pp.169. 175-177. 183-184. 189-190. 203-204.

19) Cf. Werner Foerster & Gottfried Quell, “Κύριος, Κυρια, Κυριακός, Κυριότης, Κυριεύω, Κατακυριεύω”, in Gerhaer Kittel(ed.),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Band III, Kohlhammer, Stuttgart, 1950, pp.1038-1098. 특히 pp.1056-1058. 1087-1094; Léopold Sabourin, *La christologie à partir de textes clés*, Cerf, Paris, 1986(=*Recherches. Nouvelle série* 9), p.17.

20) 2코린 5,17; 갈라 6,15; 참조: 에페 2,15; 4,24; 골로 3,10; 요한 16,21.

21) Cf. Franco Manzi, *Lettera agli Ebrei*, Città Nuova, Roma, 2001(=*Nuovo Testamento. Commento esegetico e spirituale* s.n.), pp.42-43; A. Vanhoye, *Situation*, pp.170-175. 195-207.

22) Cf. Ceslas Spicq, *L'Épître aux Hébreux. Commentaire*, Gabalda, Paris, 1953, t. II(=*Études*

으로 모든 신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인 삶의 생생한 모델이 될 것을 확신시켜 준다. 사실, 그 선포의 교리적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시며, 하느님과 동일한 불변성을 소유하시기 때문이다.²³⁾

후속 권고(13,9~18)와 더불어, 그리스도 정체성의 불변하는 성격은 신자들이 교회 지도자들(7절; 17절, 24절 참조)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다른 교리적 경향(9절 참조)에 굴복하지 않고 교회 친교에 머물러야 하는 주된 이유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공동체에 이미 “갓가지 이상한 가르침”(9절)에 끌려갈 위험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들은 특정한 음식 규정에 기초한 유대인의 문화 체계를 옹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9절; 9장 10절 참조).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단으로 이탈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히브리서는 이러한 계율의 구원적 비효과성²⁴⁾을 단호하게 반복하고, 대신 하느님의 은총에 확고하게 기초를 둔 그리스도교 예배의 타당성을 주장한다.²⁵⁾

1.3. 주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파스카 성야를 기념하는 맥락에서, 초 준비를 위한 전례 양식문의 시작 부분에 히브리서 13장 8절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은 “모든 거룩한 밤샘 전례의 어머니”인 파스카 성야에서 특별하고 강렬하게 거행되는 그리스도인 삶의 기초인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대한 선포를 상징적으로 반영한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문학적 맥락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환호 “Christus heri et hodie,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는 히브리서에 의해 완전히 독창적인 방식으로 발전된 사제적 그리스도론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울림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이 환호는 그리스도교가 탄생한 지 거의

bibliques s.n.), p.421; Albert Vanhoye, “L'épître aux Hébreux”, in Édouard Cothenet, Michèle Morgen & Albert Vanhoye, *Les dernières épîtres. Hébreux-Jacques-Pierre-Jean-Jude*, Bayard, Paris & Novalis, Outremont, 1997(=Commentaires s.n.), p.103.

23) Cf. A. Strobel, *Hebräer*, p.178.

24) 히브 13,9; 참조: 9,9; 로마 14,17; 1코린 8,8; 콜로 2,16-23.

25) Cf. F. Manzi, *Ebrei*, pp.201-205.

2000년이 지났지만 교회 신앙의 기초는 언제나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시켜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5,7) — heri 어제(13,8) — 에 겪은 수난을 통하여 “하느님에게서 멜키체덱과 같은 대사제”(5,10), “영원한 대사제”(εις τὸν αἰῶνα, 6,20; 참조: 13,8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늘 살아 계시어”(7,25) 아버지께²⁶⁾ “이제”(9,24) — hodie 현재(13,8) — 간구할 수 있고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다”(7,25).²⁷⁾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사들에서 절정에 달하는 참된 그리스도교 예배(참조: 13,9-10)를 통해 부활의 십자가의 효과적인 구원의 현존이 ‘지금 여기, hic et nunc’ 실현되며, 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참조: 4,16)에 다가갈 수 있게 해 준다. 그리하여 최종적인 구원 재화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단 한 번”(ἐφάπαξ, 7,27; 9,12; 10,10) 이룬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희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5,9)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온 생애를 다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을 고수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을 자신에게 일치시키도록 초대받고 있다.

2.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의미

‘파스카 초의 마련’ 양식문의 두 번째 그리스도론적 핵심은 요한 묵시록의 일부 표현을 모아 놓은 선집으로, 시작 영광송 전개(1,4-8)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다음에는 그 작품의 다른 부분에서 다시 다루어진다.²⁸⁾ 빛의 예식에서 파스카 초를 준비하는 순간에 이러한

26) 히브 7,25; 9,24; 참조: 로마 8,34.

27) Cf. Frederick Fyvie Bruce,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Mashall, Morgan & Scott, London, 1964(=The New London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s.n.), p.396; A. Vanhoye, “Hébreux”, p.103.

28) 묵시 21,6; 22,13; 참조: 1,17-18; 2,8; 3,14.

표현을 전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요한 묵시록 1장 4-8절²⁹⁾의 전례적 대화에서 드러나듯이 구원 역사에 관한 이 위대한 예언이 아마도 원래 이미 그리스도교 “교회”(ἐκκλησία, 묵시 1,4)³⁰⁾의 거행 환경에서 낭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³¹⁾ 이런 맥락에서 한 독서자는 신자들 앞에서 이 “예언의 책”(τοῦ βιβλίου τῆς προφητείας ταύτης, 22,19)을 선포했다. 실제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저자는 소아시아 교회에 묵시록을 전달했다(참조: 1,4). 그리고 “주일”(1,10)에 기도하기 위해 모인 모든 신자 앞에서 낭독된다.³²⁾

29) Cf. Ugo Vanni, “Un esempio di dialogo liturgico in Ap 1,4-8”, *Biblica* 57(1976), 453-467; Charles Homer Gibl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Open Book of Prophecy*, Liturgical Press, Collegeville, Minnesota, 1991(=*Good News Studies* 34), p.37; Albert Vanhoye, *Prêtre nouveau selon le Nouveau Testament*, Cerf, Paris, 1980(=*Parole de Dieu* s.n.), p.312.

30) Ugo Vanni, *L'Apocalisse. Ermeneutica, esegesi, teologia*, EDB, Bologna, 1991(=Associazione Biblica Italiana. Supplementi alla Rivista Biblica 17), p.104. 이 책에서 주역 ἐκκλησία는, 지역적 관점에서 다르게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부르신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구약성경의 일반적인 의미를 유지한다. 참조: 1역대 28,8; 29,20(ἐκκλησία κυρίου, 주님의 회중); 2역대 6,3.12.13; 20,5.14; 23,3; 29,23.28.31.32(ἐκκλησία Ἰσραηλ, 이스라엘 온 회중).

31) 요한 묵시록의 전례적 ‘삶의 자리’(Sitz im Leben)를 심화하는 데 기여한 연구자들이 있다. William Hugh Brownlee, “The Priestly Character of the Church in the Apocalypse”, *New Testament Studies* 5(1959), 224-225; Allen Cabaniss, “A Note on the Liturgy of the Apocalypse”, *Interpretation* 7(1953), 78-86; Gerhard Dellling, “Zum gottesdienstlichen Stil der Johannes Apocalypse”, *Novum Testamentum* 3(1959), 107-137; Peter von der Osten-Sacken, “Christologie, Taufe Homologie — Ein Beitrag zu Apc Joh 1, 5f.”,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und die Kunde der älteren Kirche* 58(1967), 255-266; Austin Marsden Farrer, *A Rebirth of Images. The Making of St. John's Apocalypse*, Dacre Press, Westminster, 1949; Klaus-Peter Jörmis, *Das hymnische Evangelium. Untersuchungen zu Aufbau, Funktion und Herkunft der hymnischen Stücke in der Johannesoffenbarung*, Mohn, Gütersloh, 1971(=*Studien zum Neuen Testament* 5); Samuel Läuchli, “Eine Gottesdienststruktur in der Johannesoffenbarung”, *Theologische Zeitschrift* 16(1960), 359-378; Lucertta Mowry, “Revelation 4-5 and Early Christian Liturgical Usag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71(1952), 75-84; U. Vanni, *Apocalisse. Ermeneutica*, p.74.

32) Cf. Selby Vernon Mccasland, “The Origin of the Lord's Da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49(1930), 65-82; Willy Rordorf, *Der Sonntag. Geschichte des Rube-und Gottesdiensttages im ältesten Christentum*, Zwingli-Verlag, Zürich, 1962(=*Abhandlungen zur Theologie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43), pp.203-212; W. Stott, “A Note on the Word KYPIAKH in Rev. I. 10”, *New Testament Studies* 12(1965), 70-75; Kenneth Albert Strand,

이 공적 낭독의 시작 부분에서 독서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며 응답하는 신자들에게 인사한다.³³⁾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 주셨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1,5ㄴ~6).

‘파스카 초의 마련’의 양식문의 세 번째 줄은 이 영광송 응답에 서 따온 것이다. “Ipsi gloria et imperium per universa aeternitatis saecula. Amen.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아멘.” 대신, 그 첫 번째 구절의 그리스도론적 제목인 “알파와 오메가”는 독서자의 후속 개입에서 파생되었으며, 이렇게 선포한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1,8).

2.1.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확실히 언어적 무지로 인한 것이 아닌 의도적인 문법적 부정확성³⁴⁾을 가지고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이 원래의 신성한 자기 선언에서 구원 역사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구체화한다. 요한 묵시록의 역사 신학은 하느님이 바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³⁵⁾ 그분이라는 근본적인 신앙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Another Look at ‘Lord’s Day’ in the Early Church and in Rev. 1.10”, *New Testament Studies* 13(1967), 174-181; U. Vanni, *Apocalisse. Ermenutica*, pp.87-97.

33) Cf. U. Vanni, *Apocalisse. Ermenutica*, pp.26. 74-75. 101-113.

34) 문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치사 ‘ἀπό’가 주격인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ὁ ὢν καὶ ὁ ἦν καὶ ὁ ἐρχόμενος)을 지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곧바로 이어진 “일곱 영에게서”(ἀπό τῶν ἑπτα πνευμάτων) 분명해지듯이 요한 묵시록에서는 속격과 함께 ἀπό를 대개 정확하게 사용한다. cf. U. Vanni, *La struttura letteraria dell’Apocalisse*, Morcelliana, Brescia, 2a ed., 1980(=Aloisiana 8a), p.176; C. H. Giblin, *Revelation*, pp.40-41.

다르게 말하면, 하느님은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에 살아 계시며 활동한다. 과거에 하느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것처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교회에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과거에 하느님은 요한 묵시록의 시작 부분부터 역사 속에서 하느님의 역동적인 현존을 더욱 구체화하는 속성으로 정의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결정적으로 계시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는 구원 역사 전반에 걸쳐 하느님이 약속한 것에 대한 “충실한 증인”으로서의 역할로 고려되었다. 이러한 구원의 약속은 인간의 죽음을 겪기까지 사람들과 연대하는 형제가 된 예수에 의해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가 다른 사람들과의 이러한 연대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위해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전해 주었다(참조: 1,6).

사실, 예수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었는데, 이 성령³⁶⁾은 여기(1,4)와 다른 구절(3,1; 5,6)에서 “일곱 영”(ἀπό τῶν ἑπτα πνευμάτων)이라고 매우 독창적으로 표현되었다. 물론 성령은 오직 한 분이다. 그러나 요한 묵시록과 더 일반적으로 성경의 숫자 상징에 따르면 숫자 7은 특정한 실재 전체를 나타낸다. 더욱이 요한 묵시록은 복수인 ‘일곱 영’을 통해 성령의 다양한 나타남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이 인간의 활동과 역사의 사건 속에 현존하게 하는 모든 은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하느님의 계시에 직면하여, 전례 거행을 위해 모인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 이야기를 다시 읽고 그 궁극적인 의미를 이해한다(1,5ㄴ~6). 더 정확하게는 역사를 신앙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의 예언적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교회는 교회 내부의 어려움과 무엇보다도 외부 박해로 인해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유혹을 피하기 위해 신자들은 먼저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사랑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는 충실한 사랑을 인식하도록 초대받는다. 과거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그들

35) 묵시 1,4,8; 4,8; 참조: 11,17; 16,5.

36) 참조: 1코린 12,4,7-13; 에페 1,18; 4,4.

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다. 이 용서 덕분에 신자들은 죄인으로 살던 과거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이 근본적인 전환점은 그들과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구원 개입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³⁷⁾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을 주변에 전파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제들'(참조: 탈출 19,6)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랑을 전파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을 그분의 구원 사업에 참여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통해 독서자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메시지를 듣는다(οἱ ἀκούοντες, 1,3; ὁ ἀκούων, 22,17) 공동체에 전한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묵시 1,7).

만약 하느님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1,8) 분이라면 이야기의 끝에서 그분이 오실 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길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에서 악이 피어나가는 상황 앞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역사의 끝, 아니 오히려 역사의 끝은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적으로 끝나는 구원이 될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악에 대한 이 결정적인 승리는 그의 활동이 될 것이다(참조: 6,2).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예수께서 자신과 연결된 교회 공동체의 활동이 될 것이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사실(참조: 11,8)이라면 요한 묵시록의 경우 이 십자가형의 영향이 역사 전반에 걸쳐 남아 있다는 것도 똑같이 사실이다. 불신자들은 언제

37) 참조: 1요한 4,10; 로마 5,6-10; 2코린 5,18-19.

나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표시로 “가슴을 칠 것”이다.

구원 역사에 대한 이러한 폭넓은 개괄적 결론에는³⁸⁾ 하느님이 “알파와 오메가”(1,8)라고 자신을 선언함으로써, 하느님은 현존하는 모든 실재의 “시작이며 마침”(21,6)으로 자리한다. 이러한 양극성을 통해 하느님은 인류 역사의 근원이자 궁극적인 의미임을 주장한다. 그리스어 알파벳에서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포함되지 않은 문자가 없는 것처럼, 인간 역사에서도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구원의 전능함을 피할 수 있는 실재는 없다. “전능하신”(παντοκράτωρ) 하느님은 매 순간 모든 사람의 일을 인도하실 수 있다.

2.2.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히브 22,7)

‘파스카 초 마련’의 양식문에 묵시록의 이러한 표현이 포함된다. 관점에서 볼 때, 요한 묵시록 1장 8절에서 하느님이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로 선포한 것은 책 전체의 예언적 성격을 확증해 주는 의미가 있다.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파스카 전례의 맥락에서 모든 성경 예언(참조: 2코린 1,20)을 성취시킨 신비가 현실이 된다. 그러므로 이미 그리스도교 전례의 맥락에서 읽히고 그 의미가 확장되도록 예정된 요한 묵시록의 “예언의 책”(22,19)의 말씀조차도 오늘날 교회에 더 큰 가치를 갖는다.

더 정확하게는, 요한 묵시록 1장 8절에서 저자는 1인칭 단수를 사용한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인식한다(“주 하느님께서서 [...] 말씀하십니다”). 이 문학적 세부 사항은 책 전체의 예언적 성격을 확증해 준다. 저자는 성경 예언의 뒤를 잇는다. 예언의 본질적 기능은 미래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어 προφήτης가 의미하는 것처럼 예언자는 본질적으로 하느님을 ‘대신

38) Cf. U. Vanni, *Apocalisse. Ermeneutica*, pp.101~113.

하여'(접두사 προ-), '말하는'(동사 φημί) 사람,³⁹⁾ 하느님이 그의 말과 행동에 영감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친히 보낸 예언자가 백성 앞에서⁴⁰⁾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하느님과 같은 시선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예언자는 하느님의 논리로 자신의 삶의 결과나 자기 백성의 역사를 해석한다. 그는 과거의 사건과 무엇보다도 현재의 사건에서 하느님께서 그 순간에 자신과 자신을 예언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일어나기 '전에'(προ-) 그분이 알려 준 것조차도 구원의 관점에서 유용하다.⁴¹⁾

요한 묵시록 1장 8절의 “주 하느님께서서 [...] 말씀하십니다”라는 신탁에 대한 명확한 설명에서 명백히 알 수 있듯이, 묵시록 저자의 예언적 행위는 자신의 정체성을 믿는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분이 하느님이심을 전제한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를 인식한 독자들은 서기 1세기 말에 기도하려 모인 그리스도교 공동체 앞에서 “이 예언의 말씀”(προφητείας, 1,3; 22,7)을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ἀποκάλυψ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1,1)를 실현시켰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파스카 성야와 같은 전례 거행에서 이 말씀은 그 모든 예언적 계시의 힘을 발휘하는 데 가장 적합한 맥락 중 하나로 선포된다.

2.3. “주님, 언제까지 심판을 미루시렵니까?”(묵시 6,10)

요한 묵시록 1장 6절의 영광송과 1장 8절의 하느님의 자기 선

39) 참조: 민수 12,2; 2사무 23,2; 1열왕 22,28; 2역대 36,12; 예레 20,9; 26,16; 에제 3,27; 38,17; 다니 9,6; 야모 3,8; 히브 1,1; 야고 5,10; 2베드 1,21.

40) 참조: 특히 예레 25,3; 다니 9,6.

41) Cf. Franco Manzi, “Il discernimento profetico dei segni di Dio. Spunti teologici biblici alla luce di Isalia 7,1-17 e del Vangelo secondo Luca”, *Scuola Cattolica* 12(2001), 213-271.

언이 1세기 말 소아시아 교회에 부여된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가치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에 공동체가 겪고 있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 유용하다. 특히 로마제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한 유혈적이고 조직적인 박해로 인해 이들 공동체 중 다수는 절망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참조: 1,9; 12,13.17; 13,7).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혔다(참조: 2,10).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⁴²⁾ 묵시록의 저자는 자신의 신앙 증언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직접 말한다(참조: 1,9). 세속적이고 무적인 로마는 불과 반세기 전에 탄생하여 제국 영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작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반대편에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로마의 박해가 촉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참조: 2,9; 3,9)으로 그리스도교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동체는 끈기를 갖고 인내했다(참조: 3,8).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곧 죽게 되었다(참조: 3,1).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믿음을 부인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계속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믿음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컸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의 우주적 주권을 선포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은 제국의 권력의 감시하에 있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지금은 지상에서 신으로 숭배받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것 같을 것이다.⁴³⁾

이러한 극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묵시록의 저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예언자가 되려고 노력한다. 즉 그는 신앙의 눈으로 그 위기의 시기를 읽으려고 노력한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위기에 그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그도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며, 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환난을 겪고 있다(참조 1,9). 그러므로 그는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그러므로 선과 악⁴⁴⁾을 ‘영적’(πνευματικῶς, 11,8)⁴⁵⁾으로 분별하도록⁴⁶⁾

42) 참조: 묵시 2,13; 6,9-11; 7,13-14; 16,6; 18,24; 20,4.

43) 참조: 묵시 13,4.8.12-15; 14,9.11; 19,20; 20,4.

44) 참조: 묵시 13,18; 17,9. cf. U. Vanni, *Apocalisse. Ermeneutica*, pp.63-72.

노력하고 권고한다. 진정한 실재와 허상뿐인 것 사이에서의 분별, 역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임금들”(1,5)47과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한”(1,6) 부활한 그리스도 사이에서의 분별이다. 물론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은 인간의 자유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참조: 3,20). 그러나 그분은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임금들의 임금”(17,14; 참조: 19,16)이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새 하늘과 새 땅”(21,1)을 향해 인류 역사를 이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죽음도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21,4).

그러므로 이 책에서 요한은 하느님의 구원적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의 증언을 담고 있다.⁴⁸⁾ 그리고 바로 이러한 믿음 덕분에 하느님은 그에게 ‘예언적’ 임무를 맡겼다. 그분의 이름으로 소아시아 교회들(참조: 1,1~3; 22,6~8)에게 말하여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역사의 목적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책이 그리스어로 ‘계시’를 의미하는 첫 번째 단어인 그리스어 ‘ἀποκάλυψις’로 정의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역사상 모든 것이 명확하지는 않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명백한 실재와 숨겨진 실재, 겉모습과 진실이 있다.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묵시 12,9)가 땅으로 쫓겨난 후에도(참조: 묵시 12,9.13) 계속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통하여 악을 행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영은 마치 바람처럼 “불고 싶은 데로”(요한 3,8) 불고 — 요한 묵시록의 빈번한 신학적 수동태가 암시적으로 알려주듯이⁴⁹⁾ — 필요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선을 행하도록(참조: 묵시 19,8) 은밀하게 이끈다.

45) 참조: 1코린 2,13. cf. U. Vanni, *Apocalisse. Ermeneutica*, p.80.

4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권고적인 담화이다. “Ο ἕχων οὖς ἀκουσάτω τί τὸ Πνεῦμα λέγει ταῖς Ἐκκλησίαις”[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묵시 2,7.11.17.29; 3,6.13.22)]. Felipe Pailla, “Aquestá la mente que tiene sabiduria”(Ap 17, 9a). *Naturaleza y función de la reflexión spienccial en el Apocalipsis*, Pontificia Universitas Gregoriana, Roma, 1982.

47) 묵시 6,15; 17,2.18; 18,3.9; 19,19; 21,24.

48) 참조: 묵시 1,8; 4,8; 11,17; 15,3; 16,7.14; 19,6.15; 21,22.

49) Cf. U. Vanni, *Apocalisse. Ermeneutica*, pp.37. 258, n.10; pp.324. 329.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역사에서 베일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다. 사실 그는 하느님의 활동을 발견하는 것이 위기에 처한 형제들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며 신자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특히 고통받고 박해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강화되었을 것이다.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낙담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잡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밀이 계속 자라는 것(참조: 마태 13,24-30)을 엿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도 이 모든 것의 베일을 제거하는 것은 특히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이제 인내의 한계에 이르러 하느님께 청하러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의 원천이 된다.

“기록하시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묵시 6,10).

다르게 말하면, 하느님이 참으로 우주의 주권자라면, 왜 그분은 자신의 신자들이 박해받고,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걸까? 실제로 역사는 임의의 법칙을 따르거나 단순히 인간 결정의 결과일 수 있는가? 하느님과 그분의 역사 속 영원한 구원 활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드러내는 이러한 질문에 직면하여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확고한 믿음의 대답을 제시한다. 실제로 당신의 예언자를 통해 응답하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다. 따라서 로마 황제나 “세상 임금들”에 의해 지휘되는 것처럼 보이는 역사의 베일 너머에 그분이 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역사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선언한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묵시 1,8; 21,6). 그러나 다양한 인간사에 관여하는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요한 10,30; 17,11.21 참조) 이기에, 아들은 부활한 후에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일을 수행한다.⁵⁰⁾ 이러한 의미에서 영광을 받은 그리스도는 “처음이며 마지막”

50) 참조: 요한 5,36; 8,28-29; 9,4-5; 10,25.31.37; 14,10-11.31.

(묵시 1,17; 2,8)인 분, 즉 구약의 신자들이 오로지 하느님께만 행했던 칭호(참조: 이사 44,6; 48,12)로 찬양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요한 묵시록 22장 13절에서 아버지 하느님과 동일한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낸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다(참조: 1,8; 21,6).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더욱이 그의 신적 위엄을 드러낸 십자가의 수난과 부활은 모든 피조물이 아버지와 함께, 마치 아버지처럼 흠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5,13).

2.4.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파스카 성야 동안 히브리서, 요한 묵시록, 신약 전체와 완벽한 연속성을 지닌 ‘파스카 초 마련’ 양식문으로 선포되는 하느님의 비전이다. 서기 1세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사회에 존재하는 외적 원인과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내적 원인에서 기인한다. 초기 교회 당시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주된 외적 원인은 로마 황제들의 잔혹한 박해, 좀 더 미묘하게는 이교도적 사고방식과의 충돌이었다. 그러나 위기의 가장 내적인 원인은 당시에도 현재에도 인류 역사에서 성령의 표징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에 대한 비전이 무너진 것이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이러한 심각한 신앙의 어려움에 직면하여도 냉담하지 않고, 교회는 파스카 여행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해서 선포한다.

Ipsius sunt tempora et saecula. Ipsi gloria et imperium per universa aeternitatis saecula Amen.

시간도 시대도 주님의 것이오니,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아멘.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있어

서,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추어, 파스카 촛불의 빛으로 상징되는 것을 재발견하도록 우리를 재촉하는 예언적 신탁이다. 그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를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향해 이끄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다.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은 더 이상 삶의 어려움과 박해가 아니다. 그러나 박해와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이 전례 양식문과 행위로 표현된 예언은 이것이다. 역사는 부활한 예수(참조: 묵시 6,2)의 역동적이고 승리를 거두는 활동에 의해 심오하게 활력을 얻는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요한 12,32)라고 약속한 그리스도의 파스카 영광의 신비에 대한 암시를 통하여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신앙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느님이 끊임없이 모든 인류를 당신께로 끌어들이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으로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것⁵¹⁾을 재발견할 수 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임금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묵시 15,3).

51) ‘놀랍게 하다’와 연관된 구절들이 있다. 묵시 13,3; 15,1; 17,6.7.8.

국문초록

‘모든 거룩한 밤샘 전례의 어머니’인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밤인 파스카 성야는 네 예식, 빛의 예식, 말씀 전례, 세례 예식 또는 세례 갱신식, 성찬 전례로 구성되어 있다. 성서학자인 프랑코 마지는 파스카 성야에서 빛의 예식 중, ‘파스카 초의 마련’(Praeparatio cerei) 전례 양식문에 인용된 성경 구절들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그 안에 포함된 밀도 있는 신학들을 밝혀내고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암시해 준다.

풍성한 성경 인용과 암시로 이루어진 ‘파스카 초의 마련’ 전례 양식문에는 두 가지의 그리스도론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인간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존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의미이다.

‘인간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존’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와 히브리서 1장 12절 “당신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당신의 햇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를 기본으로 확인되며, 시편 102장 26-28절을 인용한 히브리서 1장 10-12절도 참조할 수 있다. 이 성경 구절들은 하느님 아들인 그리스도의 불변성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도 함께했음을 밝혀 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의미’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전례 거행 환경에서 낭독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요한 묵시록 1장 4-8절의 전례적 대화로, 환난 중에 있던 당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응답이었다. 이 전례적 대화에서 나타난 구원 역사에 관한 위대한 예언은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다양한 견제, 내적으로는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발휘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리라는 충실한 사랑에 대한 인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준다.

‘파스카 초의 마련’ 전례 양식문에 조합된 성경 구절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초기 교회의 이교도적 사고방식과의 충돌로 로마 황제들의 잔혹한 박해가 있었고, 또한 하느님과 그의 아들로부터 배출된 성령의 표징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부족으로 신앙의 어려움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파스카 초의 마련’ 전례 양식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적 박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존에 대해 의심하는 심각한 신앙의 어려움에 직면하여도 그들이 냉담하지 않고, 교회가 거행하는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해서 선포함으로써 성령의 표징을 알아보는 신앙생활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제어: 파스카 성야, 빛의 예식, 파스카 초, 파스카 초의 마련, 파스카 성야의 성경.